



NS홈쇼핑
뉴파머스 레스토랑
청년농부 판로개척
L1

metro®

Life

풀무원다는
체온활동 유산균
기능성 발효유 선배
L2



풍경 담은 작품... 모험의 놀이터... 단지에 펼쳐진 동화 속 세상

아파트의 미학(美學)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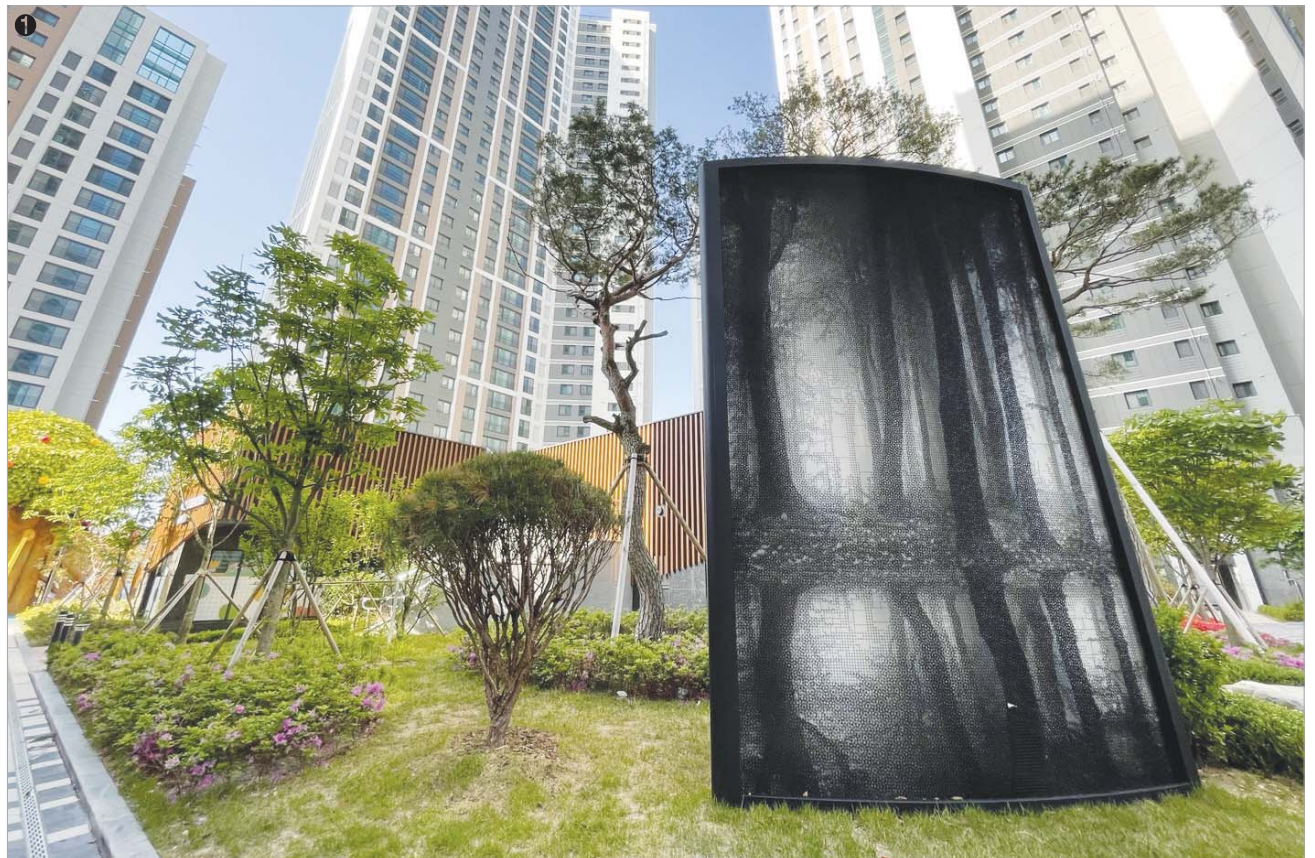
대형 쇼핑시설·교통망 갖춘 1558가구 단지
세련된 아파트에 생기 불어넣는 조경 눈길

풍경 담은 작품으로 고급스러운 분위기 연출
소나무 둘러싸인 수경 중심의 '중앙광장'도

에버랜드 조경팀 설계한 놀이터 특별함 더해
판다월드, 매직트리 등 환상 속 놀이터 구현

- ① 단지 중앙에 설치된 박승모 작가의 작품 '환'.
- ② 연못 옆 자리잡은 작품 '호수의 풍경'.
- ③ 판다월드 테마로 만든 놀이터.
- ④ 로스트밸리 놀이터.
- ⑤ 에버랜드 특화 '매직트리' 놀이터.

/전지원 기자



최근 찾은 대전 서구 도마동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했다. 고속철도(KTX) 서대전역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25분가량 걸렸다.

입주민을 반기는 넓고 반듯한 게이트는 회색 석재 마감
으로 고급스럽게 처리돼 단정한 인상을 준다. 절제된 디자인
은 주변 건축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양쪽으로 펼쳐진 고층 아파트 동들은 균형 잡힌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돼 있어 도시적인 세련미와 함께 정돈된 분
위기를 자아낸다. 곳곳에 식재된 조경수와 녹음은 차가운
도시 건축 속에서 적절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도마근시장, 대형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등의 편
의시설을 비롯해 홈플러스, 코스트코, 세이백화점 등의
대형 쇼핑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옆으로는 도마네
거리, 계백로, 도산로 등 사통팔달의 도로 교통망을 갖췄
고, 호남고속도로, 통영대전고속도로 등의 진입이 용

이하다.

대전서남부터미널과 대전 지하철 1호선 서대전네거리
역도 인근에 위치해 있고,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신설
역도 계획돼 있어 교통여건은 더 좋아질 전망이다.

유원초가 단지 바로 맞은편에 있고 버드내중, 도마중,
대전제일고, 대신고 등도 가깝다. 대전과학기술대, 배재대
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유등천이 인접해 수변산책로를
따라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다.

호반건설이 시공한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은 지하 4층
~지상 최고 35층, 11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1558가구
로 구성됐다. 단지에는 호반써밋 그랜드센트럴만의 조경
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박승모 작가의 작품 '환'이 설치돼 있다.
환이란 영사기에서 투과된 이미지라는 뜻으로, 호수에 숲
의 풍경이 드리워진 모습을 표현했다. 12겹의 스테인리스
스틸 철망을 중첩해 만들어 낸 작품은 명암의 대비가 돋보
인다. 작품 내부에 노란 빛의 조명효과로 화려한 야경 연
출과 더불어 단지를 더 고급스럽게 연출한다.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올라가면 '중앙광장'이 보인다.
수려한 소나무로 둘러싸인 수경 중심의 상징적인 공간이
다. 절벽 형태의 석가산과 폭포, 자연형 연못을 가로지르
는 긴 보행석교를 거닐다 보면 고급스러운 리조트형 티하
우스가 보인다. 이 곳에 마련된 라탄소파에서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다.

연못 옆에는 작품 '호수의 풍경'이 보인다. 청정한 호수
가장자리의 연 잎 사이로 물고기가 보금자리를 트는 형상



을 모티브로 했다. 쾌적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소
중함을 내재적으로 표현했다.

커뮤니티 센터에는 입주민들이 건강하고 여유로운 생
활을 보낼 수 있도록 스크린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사우
나, 키즈클럽, 작은도서관, 독서실 등 다양한 시설이 조성
됐다. 109동 지상 34층에는 대전 도심 파노라마 뷰를 한눈
에 담을 수 있는 스카이커뮤니티도 있다.

대전 최초로 삼성물산 에버랜드조경팀에서 푸른조경과
힐링공간을 설계시공한 단지답게 놀이공원을 방불케 하는
놀이터가 인상적이다. '이슈빌리지 놀이터'는 알록달록 동
화 속 상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환상의 놀이공간이다. 바닥
분수와 연계한 한 편의 동화같은 모습이다. '매직트리' 역
시 마법에 걸린 거대한 나무 위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모
험의 공간이다. 다양한 슬라이더와 오르기네트 등 수직공
간으로 구성돼 있다.

에버랜드 내 판다월드 테마를 차용한 '판다월드 놀이
터'와 짙라인, 나무타기 및 암벽의 유기적 형태로 모험심
을 자극하는 '로스트밸리' 등 지형의 변화에 따라 놀이의
변형이 가능한 창의적 놀이공간이 갖춰져 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